

영분별의 일반적 원칙들 3

1. 찬양: 585장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 기도: 구역원 중

3. 성경봉독: 마태복음 14:28-32

4. 말씀나눔

◈ 마태복음강해(110) | 기적이 계속되는 삶 | ◈

[memo]

5. 성령론 교재 나눔

◈ **성령론Ⅲ** 『성령론Ⅲ』 페이지. 44-53 ◈

4. 영분별의 일반적 원리들

15)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영도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막 5: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무관심의 영을 몰아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열심도 관심도 충성도 없는 다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은 마귀로써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입니다.

16) 불면의 영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편안히 잠자도록 하셨습니다.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고 온갖 공상과 불면의 고통스러운 밤이 오래 계속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잠이 달고 즐겁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수면 생활에 저주가 옵니다.

[시 127: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3:24]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신 28:67]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성경참조 ※[렘 31:26, 욥 7:3-4, 욥 7:13-14]

17)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는 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대접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을 수시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민 12:8-10] 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살전 5:12-13]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딤전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롬 14: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히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갈 6: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 성경참조 [마 10:40, 마 10:14-15, 슥 3:1-5, 마 10:42, 행 23:1-5, 벧후 2:10-11]

18) 사랑이 없는 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성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요, 모질고 냉혹하고 무자비하면 성령을 받은게 아닙니다.

[요일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7-8]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성경참조 [요일 4:12, 요 4:17-18, 고전 13:4-7]

19) 평강이 없는 마음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악령은 늘 불안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요 20:21). 마귀가 역사하던 사울의 마음에는 번뇌가 가득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던 욥도 불안했습니다.

[요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 성경참조 [욥 3:25-26, 벧후 1:2]

20) 사람을 혼미케 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혼미케 하고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질서와 화평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교리를 배울 때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뭐가 문지를 잘 모르도록 혼미해지면 그 교리는 마귀의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케 하고, 정신을 혼미 시켜 영적 최면 상태에 이르게 해서 이단 교리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거나 읽다가 정신이 얼떨떨해지고 아리송해지면 그 교리는 정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주목하면 이단성이 보입니다. 반면 성령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은 뚜렷하고 명쾌하며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 성경참조[창 3:4-6, 엡 3:12]

21) 예배나 설교 시 계속 졸게 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졸음도 오고 예배나 기도 시에도 깜박깜박 잠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특히 설교만 시작되면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고가 끝나면 정신이 듭니다. 이것이 몇 달씩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마귀(졸음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막 4: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눅 22: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잠 6:10-11 10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11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 성경참조 [눅 22:21-22, 막 14:37, 행 20:7-9, 잠 24:33-34]

6. 찬양: 348장 - 마귀들과 싸울지라

7. 합심기도 - 말씀과 구역, 교회의 공식 기도제목으로 기도합니다.

8. 주기도